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05>

JCCT 2024-5-36

대학생의 눈치,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unchi, Social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

주신영*, 장태희**, 박정희***, 한우석****

Shin-Young Ju*, Tae-Hee Jang, Jung-Hee Park***, Woo-Suk Han******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D시에 소재한 3, 4년제 대학의 1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대인관계는 눈치($r = .645, p < .001$), 사회적 자기효능감($r = .465, p < .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의 영향 요인은 눈치($\beta = .566, p < .001$)와 사회적 자기효능감($\beta = .211, p = .001$)이었으며, 설명력은 46%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대학생의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눈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nchi, social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xplore ways to form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80 college students at three and four-year universities in City D from October 1 to October 29, 202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nd definitively correlated with nunchi ($r = .645, p < .001$) and social self-efficacy ($r = .465, p < .00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fluence factor was, nunchi ($\beta = .566, p < .001$) and social self-efficacy ($\beta = .211, p = .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6%. Therefore, the formation of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social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and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e variables that increa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social self-efficacy so that they can act positivel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Nunchi, Soci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정희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참여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wshan@konyang.ac.kr
Dept. of Hospital Manage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경험하는 집단이자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다 [1]. 이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 확립과 성인기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 가는 중요한 단계로 [2] 학교생활 경험으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대학 생활 동안 학업에 전념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 또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 대인관계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3] 때문에 주변 시선에 눈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대인관계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대한 어떤 행동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심리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건강한 대인관계는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직장에서도 유사한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5] 이러한 관계패턴이 부적응적으로 반복되면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눈치가 있다. 눈치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알아차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걸어서 슬며시 드러난 생각이 나 태도를 의미한다 [6]. 또한 눈치는 파악 요인과 행동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공감이나 마음 읽기와 유사하며 일대일 상황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통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사회 기술과 유사하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미한다 [7]. 눈치는 타인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과 공감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8]. 또한 눈치가 한국 사회에서 발달한 이유는 집단주의 사회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6],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타인이나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눈치와 대인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9], 눈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인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따라서 눈치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나라 인간관계의 특성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인이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0]. 사회적 자기효능감 역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적용한 것으로, 특정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이다 [11]. 사회적 효능감은 최근 대학에서 팀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을 통한 학습 형태를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결정과 준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영향 요인 [12]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대인관계에 서투르고 관계에 대한 부적응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 및 유지시키며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필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자주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눈치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눈치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3, 4년제 대학의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의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임의 표집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듣고 설문지의 수신을 동의한 학생에게 URL을 발송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거부나 중도 포기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문자를 전송받은 학생은 설명문을 읽고 자의적으로 설문지 참여에 동의한 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입력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유의 수준 (α).05, 검정력($1-\beta$).95,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 (r).15 로 적용한 결과 응답을 제출한 180명의 설명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눈치

눈치 측정 도구는 허재홍과 박원주 (2013) [10]가 개발한 눈치 척도를 사용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허재홍과 박원주(2013)[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2)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강한아(2013) [1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6점까지 Likert 6점 척도로 평가한다. 강한아(2013) [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 도구는 이연수와 이미식(2014) [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관계성 검사척도 (Relation Scale)를 사용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이연수와 이미식(2014) [1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의사소통 .96, 개방성 .94, 이해성 .89, 공감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으며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대인관계의 영향 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73명(40.6%), 여자 107명(59.4%)로 여자가 더 많았고, 나이에서는 ‘20세 이하’ 39명(21.7%), ‘21-22세’ 57명(31.7%), ‘23세 이상’ 84명(46.7%)으로 ‘23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학년에서는 저학년이 85명(47.2%), 고학년 95명(52.8%)으로 고학년이 더 많았다. 전공에서는 보건 계열 138명(76.7%), 비보건 계열 42명(23.2%)으로 보건 계열이 더 많았다. 경제활동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94명(52.2%),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86명(47.8%)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대학 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 이하’ 80명(3.77%), ‘만족’ 100명(55.6%)으로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63(±.78)점, 전공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60(±.89)점, 학업성취도의 평균 점수는 3.66(±.32)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눈치는 3.95(±.62)점, 사회적 자기효능감 4.05(±.84)점, 대인관계 3.87(±.55)점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stic	Category	N (%)	M±SD
Gender	Male	73(40.6%)	
	Female	107(59.4%)	
Age(Year)	≤20	39(21.7%)	22.12±1.58
	21-22	57(31.7%)	
	23≤	84(46.7%)	
Grade	junior	85(47.2%)	
	senior	95(52.8%)	
Major field	Natural science	138(76.7%)	
	Non-Natural science	42(23.2%)	
Part time job status	Yes	86(47.8%)	
	No	94(52.2%)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0(44.4%)	3.63±.78
	Fairly satisfied	100(55.6%)	
Major	≤Generally	80(44.4%)	3.60±.89

satisfaction	satisfied		
	Fairly satisfied	100(55.6%)	
Academic achievement	≤3.49	36(20.2%)	3.66±.32
	3.50-3.99	110(61.6%)	
	4.00≤	34(18.9%)	
Nunchi			3.95±.62
Social Self-efficacy			4.05±.84
International relationship			3.87±.5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t=7.245, p=.001$), 대학 생활 만족도($t=-3.858, p<.001$), 전공 만족도($t=1.082, p=.04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180)

Characteristics	N	M±SD	t or F	p
Gender	Male	73 3.83±.58	-.80	.424
	Female	107 3.00±.53		
Age(Year)	≤20	39 3.83±.52	0.58	.558
	21-22	57 3.82±.61		
	23≤	84 3.92±.53		
Grade	Junior	85 3.84±.55	-.62	.535
	Senior	95 3.89±.56		
Major field	Natural science	138 3.91±.51	4.36	.104
	Non-natural science	42 3.73±.67		
Part-time job status	Yes	86 3.87±.53	.61	.951
	No	94 3.87±.58		
Academic achievement	≤3.49 ^a	36 3.56±.65	7.24	.001 (a<b,c)
	3.50-3.99 ^b	34 3.95±.50		
	4.00≥ ^c	110 3.92±.51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0 3.70±.54	-3.85	<.001
	Fairly satisfied	100 4.01±.53		
Major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0 3.77±.60	1.08	.045
	Fairly satisfied	100 3.94±.50		

3.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는 눈치($r=.645, p<.001$), 사회적 자기 효능감($r=.465, p<.001$)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표 3. 대상자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Nunchi, soci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N=180)

Characteristics	Nunchi	Soci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nchi	1		
Social Self-efficacy	.421 <.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645 <.001	.465 <.001	1

4. 대인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552~.97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7~1.810으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은 2.292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대학 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표 4.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Affected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odel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3.0		5.76	.000	.78		1.71	0.89
Major satisfaction (ref: ≤Generally satisfied) Fairly satisfied	.135	.121	1.69	.101	-.059	-.053	-.910	.364
University satisfaction (ref: ≤Generally satisfied) Fairly satisfied	.424	.057	.777	.438	.516	.069	1.221	.224
Academic achievement (ref≤3.49)								
3.50-3.99	.363	.318	3.471	.001	.121	.106	1.466	.145
4.00≤	.314	.221	2.399	.017	-.021	-.008	-.113	.910
Nun chi					.499	.566	8.530	<.001
Social Self-efficacy					.139	.211	3.431	.001
R ²	.094				.482			
Adjusted R ²	.135				.464			
F(p)	4.532(.002)				26.802(<.001)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 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학업성취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 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532, p=.002$), 대인관계를 20% 설명하였다. 모델2의 설명력은 46%로 증가했고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6.80, p<.001$).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beta=.566, p<.001$)와 사회적 자기효능감($\beta=.211, p=.001$)이었다 (표 4).

IV. 토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눈치는 평균 점수 3.95 점(5점 만점)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4, 15]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호대학생은 주로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한다

는 점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경험으로 언어적과 비언어적 표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발달하였으며 일반 대학생과 달리 공감 능력이 [16] 있어야 하는 전공학문이기 때문에 비교적 눈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점수 4.05점(6점 만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인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정서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높아 정서조절능력이 증가하여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18, 19, 20].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3.87점으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1, 22]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보건계열의 경우 다른계열에 비해 공감능력이 요구되는 전공계열이니 만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중간 이상인 군이 낮거나 높은 군보다 대인관계가 높았다. 이는 보건계열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1]와 상이한 결과였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가 높은 군이 대인관계가 좋았고 이는 선행연구와 [21, 22] 유사한 결과였다. 전공 및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학우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친구 수도 많아지면서 동아리 활동등 대인관계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19, 20]. 또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대인관계가 좋았는데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어 각 변수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을 위해 학생상담 센터 및 전공 관련 행사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활용한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눈치, 사회적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8, 12, 15, 17]와 일치하였다. 눈치는 타인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동과 공감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효능감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대인관계의 영향 요인은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설명력은 46%이었다. 이는 선행연구 [17]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렇듯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높은 수준의 눈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으며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이 만족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므로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대인관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눈치는 대인의 심리적 기전으로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대체기전이라 하였다 [10]. 즉 높은 수준의 눈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으며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으로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하여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눈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눈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눈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영향요인은 눈치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눈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D. Sarokhani, A. Delpisheh, Y. Veisani, M.T. Sarokhani, R.E. Manesh, K. Sayehmiri,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tudy", Hindawi Publishing Corporation, Vol. 2013, No. 2, pp. 1-7, 2013. DOI: <http://dx.doi.org/10.1155/2013/373857>
- [2] Schriver,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I", University of DelawareState, 2011.
- [3] M.H. Park, S.Y. Yim, "Association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1, No. 2, pp. 365-375, 2017.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2.365>
- [4] M.G. Choi, E.Y. Sh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adolesce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4, pp. 1-16, 2003.
- [5] H.J. Chu, "An Analysis on Job Adjustment Barriers of New College Graduat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4, No.1, pp. 73-93, 2012. DOI: <http://dw.doi.org/10.18211/kjhrdq.2012.14.1.004>
- [6] J.H. Heo, W.J. Park, S.J. Kim, "Conceptualization of Nunchi", Institute of Human Sciences, Vol. 0, No. 33, pp. 557-581, 2012.
- [7] J.H. Heo, C.K. Oh, "The relation between nunchi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 in the mediation of self-concept cla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6, pp. 337-350, 2015. DOI: <http://dw.doi.org/10.15703/KJC.16.6.201512.337>
- [8] J.H. Heo, "The effects of nunchi on SWB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3, pp. 1067-1084, 2014. DOI: <http://dw.doi.org/10.15703/kjc.15.3.201406.1067>
- [9] H.J. Park, H.J. 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 48-57, 201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48>
- [10] J.H. Heo, W.J.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537-3555,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6.201312.3537>
- [11] H.N. Kang, A.Y.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sial Self-efficac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No. 2, pp. 263-283, 2013.
- [12] Y.S. Lee, S.H. Park, J.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229>
- [13] Y.S. Lee, M.S. Sik, "The Development of a Relationship Scale(RS) for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4, pp. 383-404, 2014.
- [14] M.H. Lee, M.K. Jeon, "Effects of Nunchi and Grit on College Adj 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7 No.3 pp.81-92, 2023.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3.17.3.081>
- [15] Y.S. Yang, S.H. Hong, J.L. Ryu,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Interpersonal Harmon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7, pp. 75-83,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7.075>
- [16] S.J. Kang, C.S. Shim, "Factors of Influencing Empathic ability,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 No. 3, pp. 405-413,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405>.
- [17] M.S. Ryu, "The Effects of the Need for Approval, Nunchi, Social Self-efficacy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3, pp. 1243-1272,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3.1243>
- [18] W.W. Lee, J.Y. Lee. "Emotion Dysregulat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Compar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2, No. 2, pp. 195-212, 2011.
- [19] McDowell, D., Kim, M., O'Neil, R., & Parke, R.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Marriage & Family Review*, Vol. 34, pp. 345-364, 2002. DOI: https://doi.org/10.1300/J002v34n03_07
- [20] Mallinckrodt, B., & Wei, M.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2, No. 3, pp. 358-367,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2.3.358>
- [21] G.J. Na, E.H. Na,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the Degree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Nursing and Health Science Colla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9, pp. 205-221,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9.205>
- [22] S.S. Sim, M.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17, No. 12, pp. 634-642,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23] E.J. Park, G.S. Jeong,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8, No. 3, pp. 153-162,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0.8.3.153>
- [24] M.J. Park, Y.L. Ham, D.N. Oh,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27-337,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4.327>
- [25] J. A. park, S.H. Ha, "Effe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5, No. 3, pp. 43-52, 2021. DOI: <http://dx.doi.org/10.36357/johe.2021.25.3.43>